

年 소득 7천만원 초과 보금자리론 못받는다

〈부부합산〉

정부 정책모기지 개편...서민 실 수요층 혜택 집중

주택 가격 9억→6억...대출 한도 5억→3억원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대 고정 금리를 제시해 인기몰이를 해온 보금자리론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정부가 지난 10월 부랴부랴 일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의 환원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000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준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정책 모기지를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처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앞서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10월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 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도 축소한다. 정부는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으로 잡았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

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000억원)보다 줄어든 7조6000억원이다.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고 정책 모기지에 손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1.07 (+39.18)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2)

↑ 코스닥 584.62 (+6.10) ↓ 환율 (USD) 1158.50원 (-9.40)

김한 광주은행장, 中企 금융지원 총리상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사진)은 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에서 김한 은행장이 중소기업 지원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은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지원에 공을 세운 ‘은행’ 및 ‘보통기관’ 등의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김한 은행장은 평가항목인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포함한 정책금융 지원, 신규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광주은행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관 및



지역보증재단의 ‘특별출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광주상공회의소 및 한전 등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중소기업육

성 자금지원과 유동성자금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한 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격려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광주·전남지역 소재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은행으로서 사명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LH 옛 토공 치평사옥

415억원 수의계약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8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옛 토공 치평사옥 매각이 잇따라 유찰됨에 따라 신축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옛 토공사옥은 6612㎡ 부지에 지상 13층, 지하 2층 규모로 지난 2007년 12월 준공됐다.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이후 7년째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LH는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매수자를 찾을 방침이다. 수의계약 개시일은 오는 22일로 공급가격은 415억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 게임 모니터 ‘CFG70’ 한달만에 2000대

10월에 출시된 CFG70은 고가의 게이밍 모니터로는 이례적인 속도로 매주 500대씩 완판되며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국내 출시 한 달 만에 2000대 판매를 돌파한 삼성 퀀텀닷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CFG70’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삼성전자 제공〉

신임 광주국세청장에 김희철씨

국세청은 8일 서울국세청장에 한승희 조사국장을, 부산국세청장에 서진욱 대구청장을 각각 고공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김희철 기획조정관, 대전국세청장에 신동렬 교육원장, 대구청장에 윤상수 중부청 조사 2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이은형 감사관을 각각 전보했다. 부임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전남 영암 출신인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56)은 행정고시 36회로 대전고과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세무서 총무과장, 목포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청 기획계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 국세청 기획조정관에는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 최정욱 국세청 전산정보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에 김용근 서울청 성실납세국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자동차 수출 13개월만에 증가세

11월 전년비 0.9% 늘어

11월 자동차 수출(대수 기준)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완성차 실적을 집계 집계한 결과 수출 대수는 26만 491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만이다. 11월 수출 금액도 39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 늘어 17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주요 제조업체의 임금협상

타결로 공급 물량이 늘었고, 대형·다목적 차량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산차는 내수에서도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한 14만3329대를 팔았다.

하지만 수입차는 내수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6.0% 줄어든 2만1913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일부 업체의 공급 물량 부족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내수 전체 물량은 16만5252대로 전년보다 0.2% 감소했다.

/연합뉴스

효성, 무인 뱅킹 시장 선도

생체인식으로 업무 90% 처리...신한·우리은행과 공급 계약

금융권에서 ‘셀프뱅킹’ 서비스 도입이 잇따르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사업 강자인 효성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효성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국내 은행 빅3 중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뉴브랜치솔루션’ 공급계약을 맺고 셀프뱅킹 솔루션을 구축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셀프뱅킹 서비스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도입한 이래 총 거래 건수가 43만1000여 건에 달하며 사업이 순항하면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역시 효성과 관련 사업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효성의 금융 정보기술(IT) 전문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은 최근 셀프뱅킹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뉴브랜치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뉴브랜치솔루션은 은행원이 있는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생체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기존 은행 업무의 90%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권은 모바일뱅킹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영업점 다이



아트’를 선언하고 셀프뱅킹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셀프뱅킹인 ‘신한 유어스마트라운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바이오 인증 서비스(손바닥 정맥 인증 방식)를 통해 107가지의 영업점 창구 업무를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365일 이용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셀프뱅킹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노틸러스효성의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노틸러스효성의 영업이익은 2014년 74억9250만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78억491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역시 3분기까지 392억5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

